우리농업, 농촌 이렇게 가야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Ⅳ 농업진흥지역이란

(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량 농지를 묶어서 집단화하여 그곳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꾀함으로써 농업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제공〉

2、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도 따라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그린벨트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2중규제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도 지정기준에 맞으면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만, 이는 그린벨트내의 농민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지정키로 한 것입니다. 즉 그린벨트내의 농지는 농업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생산기반의 질중투자를 비롯하여 추곡수매 우선, 농지매매 사업자금과 영농기반시설등 우선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농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농업지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그 연 사유에서든 그린벨트가 해제될 점도의 사유라면 농업진흥지역도 따라서 해제될 수 있으므로 농민에게는 조금도 불편이 없게 될 것입니다.

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앞으로 계속 농지로 활용됩니다

진흥지역밖의 농지도 현재와 같이 농지매매시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시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앞으로 계속 농지로 활용됩니다.

1、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모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면 농지매매가 자유롭고 쉽게 전용이 되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타 용도로의 전용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농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전용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농지인 만큼 국민식량의 공급원인 농지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1백10만정보의 농지는 쌀을 비롯한 주요작물의 생산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지만 그외의 농산물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계속 생산되어야 하며 쌀의 경우를 보아도 적어도 1천만석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사고 팔때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고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당연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농지에 대한 투기는 사전에 봉쇄됩니다.

현재 농지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농지·상대농지 구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는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봉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방대책과 함께 농지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지의 투기를 막고 전용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결코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도 농업목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경쟁력있는 전업적 농업지구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영농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겸업적 영농이나 지역주민의 부업 영농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농공단지의 사원가족등 농어촌지역에서의 비농업부문 취업자에 대하여도 소규모 부업영농을 유도하는 등 경영비나 생산비에 관계없이 자가 소비용 채원·과수원 또는 수도작 영농형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운데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영농기계화의 어려움등으로 발생되는 휴경지는 사람이 모여들도록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거나 농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규모 기반투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5、지정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와 시·군 의회의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조정권을 주어 진흥지역이 무리없이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계획표

(1)"산당귀" 종자 현지확인(황기, 당귀 계약재배)

지 역	책 임 자	출장일자
경기 포천	이 인 기	7/1~7/2
충북 덕산	이 한 승	6/29
충남 태안	김 용 래	6/28

(2) "시범포" 설치 현황 현지 확인

지 역	품 목	책 임 자	출장일자
경기 포천	황 기	이 인 기	7/1~
	천 마		7/2
	백 출		
충북 진천	현 삼	이 지 대	7/ 6
	속 단		
충남 공주	두 충	이 기 범	7/ 7
강원 춘천	당 귀	허 수	7/ 9
전북 임실	작 약	심 재 석	7/12
전남 승주	택 사	라 한 주	7/13
보성	시 호	정 형 모	6/23
경남 거창	천 궁	이 종 규	7/15
경북 의성	작 약	박 종 연	7/16
안동	지 황	박 재 문	
제주	시 호	김 동 균	7/

連載 栽培教室

93신규회원을 위하여…

삼 = 蔘 (沙 = 사)

1、학명 : Codonopsis Lanceolata BE-NTHet HOOKER

2、과명 : 초롱꽃과 Campanulaceae

3、성분 : Saponin'이누린

4、용도 : 거담약, 해소, 기관지염

5、약용부위 : 근(根)

6、재배법

가、적지

○기후 :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할수 있다. 각지의 산에서도 많이 자생된다

○토질 : 부식질이 많고 적습하며 비옥한 양토나 부식 양토가 좋다.

나、품종 : 단일 품종

다、번식 : 종자

라、재배 요점

○파종시기 : 봄 3월하순~4월중순. 가을 10월중하순

○육묘재배법 : 300평(10a)에 대하여 약30평 규모의 묘판을 선정하여 기비로 퇴비112kg, 용성인비 또는 용과린 3.75kg 초목회 7.5kg을 산포하고 잘 갈아서 흙을 보드랍게 한다음 약 120cm 두둑을 만들고 정지한 다음 널판지로 묘상위를 가볍게 다진다음 종자를 산파하거나 아니면 20cm간격으로 골을 켜고 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다진다음 종자를 조파한다. 파종후 흙은 가볍게 덮고 묘상은 널판지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고루 땅에 묻히게하고 골을 켜고 파종한 것은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그리고 반드시 볏짚을 덮어주고 발아되면 저녁때 거두워준다. 묘상에 산파한 것은 김매기가 좋지 않으나 골을 켜고 파종한 것은 김매기가 편리하다. 발아되여 자라나면 묘상 양쪽에 나무가지로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지주를 세워서 줄기가 타고 올라갈수 있도록 해야 충실한 묘가 생산된다. 300평당 (10a)종자 소요는 1.5ℓ정도 이다.

○직파재배법 : 본밭에 퇴비를 충분히 펴고 토양개량액을 살포한후 깊이 간 다음 노타리를 치고 120cm 두둑을 만든다음 잔골을 켜고 씨를 고루 파종(젖은 모래와 3:1로 섞어서)한후 흙을 1~2cm정도 덮고 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다진 다음 그위에 3일이내에 데브리놀이나 스텁프를 뿌린다. 더덕이 자라면(2~3cm정도)김을 메고 (이때 솎음도 하고 김을 반드시 손으로 하고 호미를 대서는 안된다) 즉시 데브리놀이나 스텁프를 뿌린후 영양제 타이포를 살포해 준다. 2년째 수확을 하면 굵고 종자도 많이 채취하고 다수확이 가능하다.(2년째는 1.8m의 지주설치)

○유공비닐직파재배법 : 3~4년전에 유공비닐 이식지배를 독농가들이 선호하였지만는 상품성, 종묘대, 인력소모등으로 현재는 유공비닐 직파재배가 인기를 얻고 있다. 시비만 잘하면 당년에도 상품 수확이 되고있어 이천 등지에서는 재미를 짭짤히 본바 있다. 300평당 기비로 퇴비 4,000kg 용성인비(용과린) 60kg, 복합비료 100kg등을 살포하고 1차 밭을 갈아 놓은뒤 토양살충제, 맥반석, 톱밥 퇴비를 넣고 로타리를 친후 멀칭비닐 넓이에 따라 두덕을 만든후에 멀칭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두덕을 고루 잘 손질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두덕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멀칭후 1~2주일후에 정선된 씨앗을 300평당 3~4ℓ를 유공마다 2~3알씩 점성껏 넣는다. 약18일 정도 후에 싹이 대체적으로 올라올때 더덕씨 300평당 0.5ℓ를 준비해서 싹이 없는 빈구멍에 넣으면서 많이 나온곳은 솎아 준다. 이후에는 일반 재배에 준한다.

※가장 중요한것이 두덕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마、정식

○시기 : 봄 3월하순~4월 상순, 가을 10월하순~11월 상순

○방법 : 300평당 (10a) 기비로써 퇴비 1,125kg, 용성인비 또는 용과린 37kg, 초목회 56kg, 복합비료 60kg 등 산포한후 밭을 갈고 120cm두둑을 만들고 15cm간격으로 골을 켜고 묘간격 10cm씩 띄우고 식재한다. 가을에 정식한 것은 볏짚을 덮어 월동하는 것이 좋다. 밭아가 되면서 5cm정도 자라면 반듯이 나무 가지로 지주를 설치하여 줄기가 타고 올라가게 해주워야 하며 이때 나무가지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완전하게 세워주어야 한다. 정식에 소요되는 묘는 300평당 (10a) 36,000주 (1평당 120주)정도이다.

○추비 : 묘가 굵고 좋은것은 담년수확이 가능하나 묘가 잘고 가는 것은 이듬해 가을이나 수확할수 있음으로 되도록이면 추비보다는 잘 썩은 퇴비를 많이 밑거름으로 주어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추비로써는 나르겐, 영양제를 엽면시비하고 요소3%액을 관수한다.

바、병충해 : 병충해로는 충해, 무름병(직파시), 흰가루병, 근부병, 노균병, 탄저병, 응애 등이 있으므로 방제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충해(굼뱅이, 거세미) : 식재시 목햄이나 후전단 입제를 300평당 4kℓ~5kg 살포한다.

○응애 : 6~8월사이 발생하므로 방제농약을 살포한다.

○노균병 : 장마시 배수안되면 발생, 배수관리와 미네랄을 충분히 살포(장마전, 장마후)해야한다.

○근부병 : 6~7월사이 장마시 발생, 배수관리와 부타마이신이나 아그렙토마이신을 뿌리부근에 단보당 100ℓ물에 희석 살포한다.

○흰가루병 : 고온, 다습시 7~8월 발생, 포리옥신 1,000배액이나 지오판 수화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7、주요 관리

○중경 및 제초 : 2~3회 중경을 겸해서 김매기를 한는데 특히 발아 초기에 철저한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지주가설 :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두둑 양쪽으로 지주를 설치하여 줄기를 하늘로 향하게 유도 해 주워야 생육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발육도 나쁘고 병충해의 패해를 입기가 쉽다.

○꽃제거 : 채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화기 전에 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8、수확 및 조제

○시기 : 정식 2~3년째 10월하순~11월상순에 수확한다.

○조제 : 수확한 뿌리는 물에 씻어 껍질을 벗기어 양건한다. 300평(10a)당 수확량은 생근으로 약 1,800kg(2,800근)건근 450kg(720근)정도 수확할 수 있다.

※유의할 점

○묘는 굵고(8mm정도)곧은 것을 심어야 한다.(수직보다 약간 뉘어서 심을 것)

○잘 썩은 퇴비, 잘 썩은 계분등 밑거름으로 많이 주어야 한다.

○발아후에는 나무가지로 지주를 설치하여 줄기를 받침이 유도해 주워야 한다.

(바람에 쓸어지지 않게 설치)

○종자로 파종시는 파종후 흙을 1~2cm정도 덮고 널판지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땅에 밀착되게 해주고 즉시 짚을 덮어서 수분 조절을 해준다.

○발아되여 지상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녁때 짚을 제거하여 자연스럽게 자라게 한다.

(직사 광선을 피해서 짚을 제거)